

지역 소식통

길 위의 인문학' 공모 부안군, 8년 연속 선정

부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은 책, 강연, 탐방이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생적 인문학 활동 확산에 기여하고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립도서관은 '부안을 떠나다'라는 프로그램을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강연과 탐방, 후속모임 등 총 3차시로 10회 가량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여인원을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다.

1차시는 박방영 서양화 교수가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라는 주제로 6일과 13일, 21일 강연과 탐방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게시글 및 부안군립도서관 ☎ 063-580-39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원국민체육센터 관련 고창군 업체 가압류 완료

고창군이 심원국민체육센터 안전문제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관련 업체 대상 가압류를 완료했다.

지난 3일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심원국민체육센터 시공업체와 관리업체, 레미콘 계약 당사자(전북서남레미콘합동조합), 레미콘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 인용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심원국민체육센터 안전문제와 관련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제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최종 판정됐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대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협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코로나 첫 확진 긴장

유기상 고창군수 긴급 브리핑... 감염예방 군민동참 호소 다중집합장소 방문 자제·개인위생 수칙 준수 철저 당부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3일 '타 지역 방문이나 음식점 장례식장, 대형음식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당분간 방문을 삼가고 종교행사는 중단 및 온라인 예배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그간 지역사회 전파방지에 전력을 다해 왔지만 오늘 우려했던 고창군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유기상 군수는 "이제 코로나19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고, 이 싸움은 고창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줘야만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속에서 마스크 쓰기, 손씻기 및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면서 "각종 행사, 소규모 종교모임 등은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1번째 확진자인 60대는 지난 6월28일 광주 교회 등을 방문했다. 2일 오전 고창산별치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해 이날

오후 9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창군은 확진자 통보 즉시 고창군 보건소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3일 아침 8시에는 유기상 군수 주재로 재난·의료·홍보·위생부서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실내체육시설 운영 일시중단 등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기상 군수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기 위해서는 행정의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우리의 사소한 방심이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지역에 큰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감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인근 지자체 코로나 발생 '방역 더 엄격히'

정읍시는 지난 3일 인근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최나을 도시안전국장 주재로 긴급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 국장은 따르면 지난 2일 정읍교도소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29일 퇴

직한 고창중 거주자 60대 남성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당 확진 환자의 동선인 정읍 교도소 퇴입식당 등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퇴입식당에 참석한 접촉자를 파악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33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자가 격리 조치했다. 현재 확진자 발생 경위와 이동 경로에 대해 고창군보건소에서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발생 경위와 이동 동선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살아 있는 화석 '긴꼬리투구새우' 대량 서식

정읍시, 고부면 신종리 일대 친환경 유기농업 집중

정읍시 고부면 신종리 일대에 3억 년 전 고생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긴꼬리투구새우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고부면 신종리 일대(친환경농업 논제 1·2단지)는 친환경농업으로 벼를 재배하는 대표적 지역으로 50ha 중 약 2만 평 이상의 논에



정읍시 고부면 신종리 일대에 3억 년 전 고생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긴꼬리투구새우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긴꼬리투구새우가 서식하고 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머리에 동근 투구를 쓴 것 같은 모습으로 꼬리는 가늘게 두 갈래로 뻗어있는 갑각류다.

고생대 화석에서도 발견되었으며 3억년 전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같이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정지역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약·비료 등 화학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90년대 자취를 감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2012년 이후부터 개체 수가 늘면서 해제됐다.

흙을 휘저어 먹이를 찾는 습성 때문에 흙탕물(탁수 효과)이 발생하면서 햇빛을 차단해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고 해충을 잡아먹어 친환경 농업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고부 친환경농업단지에 투구새우와 풍년새우, 우렁 등의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곳이 청정지역임이 다시 한번 입증돼 농산물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사)한국문화가치연구원(이사장 김명근)에서 주관한 제2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 수상 영예

문화정책 3개 공약사업 호평

정읍시가 (사)한국문화가치연구원(이사장 김명근)에서 주관한 제2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문화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한국문화가치대상은 민선 7기 문화정책 공약과 이행사항, 지역문화 발전과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33개(광역 5, 기초 28) 우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평가 기준에 따라 민선 7기 문화분야 정책사업과 신규·특수사업의 2019년도 이행사항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번 수상 지자체를 결정했다.

시는 '관광문화 진흥' 분야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도내 자치단체 14개 시·군중 유일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는 그간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 구축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정읍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영화제와 상춘곡 문학제 확대, 문화·관광시설 조성 및 지역축제 개최, 역사탐방 드라이브 길 조성 등 3개 공약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진섭 시장은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정책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일상에 문화가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올해 시행 2회째를 맞고 있다.

지역의 우수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한국 문화가치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시장 '향기공화국 정읍' 실현 발품

포천 허브아일랜드 방문길

유진섭 정읍시장이 최근 '향기공화국 정읍'의 성공적인 정책 구상을 위해 경기도 포천에 있는 허브아일랜드 방문길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 견학은 '향기공화국 정읍'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포천 허브아일랜드의 주요 선진 정책을 시정에 접목하는 한편, 성공적인 정책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포천 허브아일랜드는 국내 최대 향기자원(허브) 테마 관광지로 13만평 부지에 생활 속의 허브를 테마로 한 공원이다.

박물관과 힐링센터, 마켓으로 조성하고 경관 농업부터 화장품, 식품, 건강용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곳이다. 유 시장과 직원들은 박물관에서 허브아일랜드 조성과정 청취를 시작으로 식물원, 체험장, 상품 판매장 등을 방문하며 허브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둘러보고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했다.

유 시장은 "성공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포천 허브아일랜드 벤치마킹으로 정읍의 미래먹거리 향기 산업 정책의 완성도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정책 부서장과 실무자들이 현장을 느끼고 필요성을 공감하며 혼연일체가 되어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서별로 향기공화국 정읍의 정책을 개발하고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